

노래·보시·봉사 모두가 한마음



◇4월 21일 부산대덕사개원법회에서 음성공양하는 자비실천 합창단.

바라밀현장

자비실천 합창단 음성공양

“거울을 닦아내듯 마음을 닦아~ 지혜의 씨를 뿌려 복전을 닦고 卍~”
21일 부산 대청동 보덕사 개원법회에는 주황색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자비실천합창단(단장 한 대각행)의 음성공양이 울려 퍼졌다. 좁은 법당에서 그리 많지 않은 불자들에게 들려주는 찬불가지만 노래하는 마음은 결코 큰

음성공양 필요한 곳 찾아가기 10년 연습·공연 모두 정진...“무료가 원칙”

무대에 설 때와 다를 없다. 법회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 이미 행사장에 도착해 방안에 웅기종기 모여 연습하는 모습에서도 정성어린 찬불가 보시의 마음이 담겨있다. 합창단원들이 연습하는 동안 단장은 개원법회의 이모저모를 챙기며 종종집음을 친다. 특정 재적사찰을 두지 않고 활동하는 자

비실천합창단이 보덕사처럼 합창단이 없는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에서 음성공양 봉사를 펼쳐 온 지도 벌써 10년째를 맞았다. 94년 7월 22일, 찬불가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찬불가 교실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해 이제 5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는 어엿한 합창단이 되었다.

한 단장은 회원들이 내는 1만원의 회비와 사비를 털어가며 힘겹게 합창단을 이끌면서도 합창단을 초청한 곳이 어려워 차비 한 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심지어 심지어 밥 보 시급을 걸어 내놓고 오기도 한다. 이런 한결 같은 자비실천의 마음이 회원들의 보시와 봉사로 확대되었고, 음성공양을 인연으로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도 펼치고 있다.

가족은 물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비용 총담에 나서고 있는 김임순(52) 보살은 “노래하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이 다 같아요. 봉사에 쓰이는 돈은 가치로는 따질 수 없을 만큼 크게 희망한다는 걸 알고 난 후, 그냥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수시로 김해교도소, 철원 군부대, 논산훈련소 위문봉사시, 단주, 과일 공양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해지역을 방문할 때는 버스 한 대와 트럭에 물품을 가득 싣고 찾아가 자비행을 펼쳤다.

“찬불가를 배우다보면 부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찬불가를 배운 후 많이 변화한 것을 보고 주위에서 찬불가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7년 전부터 음성공양 봉사를 하고 있는 유미경(39) 보살의 말에, 봉사 10년 차인 이복금(54) 보살도 말을 거든다. “우리가 부르는 찬불가를 듣고 많은 이들이 불연을 맺고 고통과 번뇌를 벗어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요.”

노래가 곧 기도이고 정진인 자비실천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있어 보덕사의 개원법회에 참석했던 불자들은 해탈의 기쁨을 맛보고 돌아갔다. (011)859-1547

부산=천미희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효운 스님

‘깨달음의 교육’ 제창

지난 해 7월 11~18일 대만 대북시 화범(華梵)대학에서 제7차 국제불교 여성대회(일명 사카이이다) 대회를 주관한 화범대학 이사장 효운(曉雲) 스님, 대만 비구니계의 원로인 효운 스님은 93세의 노구로 행사를 들심양면으로 적극 후원해 찬사를 받았다.

1990년 세계 최초로 불교와 현대 미술교육의 융합을 시도한 화범대학의 설립자인 효운 스님은 불교인제 양성에 깊은 관심을 두고 홍콩에도 불교문화예술학원, 해해(慧海)중학 등의 학교를 세운 교육계 원로이다.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수행을 사회로 확장하는 자세가 철저한 대만 비구니계의 상징같은 존재인 효운 스님은 ‘깨달음의 교육(覺之教育)’을 제창해 왔다.

효운 스님은 그동안 ‘불교 환경교육과 자연세계관’, ‘깨달음의 교육과 생명의 화해’, ‘종교교육이 어떻게 시대의 인식을 선도할 것인가’, ‘부처님의 심리환경교육은 자리아타의 가르침’ 등을 주제로 연구하며 이를 교육현장에서 실현해 왔다. 스님이 말하는 ‘깨달음의 교육’이란 자성(自性) 즉 원융한 본체자리에서 인본정진을 최고로 발휘하는 교육이었다.

“‘깨달음의 교육’이란 인생의 의미를 깨닫도록 계발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자비심을 갖게 하고 사람과 만물이 상생(相生)하고 공존함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교육, 심리교육, 자아교육, 사람 살리는 교육을 통해 타인의 입장에까지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화범문교기념회 창립이념 중)

사람들은 수목과 꽃, 풀들이 땅 위에서 함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상생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우리들 역시 지구라는 대지 위에서 공존하고 있다. 그

렇다면 사람과 부처, 수목과 화초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이는 깨달음의 교육이 인성에 넓고 깊게 스며들지 못했기 때문이란 게 효운 스님의 생각이다.

1912년 중국 광둥성(廣東省) 남해(南海)에서 태어난 효운 스님은 사천(四川) 장원(昌員) 노화상을 은사로 출가했다. 어려서 부친으로부터 서화(書畵)를 배운 효운 스님은 ‘영남(嶺南)의 여화걸(女畫傑)’로 불릴 정도로 화예술학원, 해해(慧海)중학 등의 학교를 세운 교육계 원로이다.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수행을 사회로 확장하는 자세가 철저한 대만 비구니계의 상징같은 존재인 효운 스님은 ‘깨달음의 교육(覺之教育)’을 제창해 왔다.

효운 스님은 그동안 ‘불교 환경교육과 자연세계관’, ‘깨달음의 교육과 생명의 화해’, ‘종교교육이 어떻게 시대의 인식을 선도할 것인가’, ‘부처님의 심리환경교육은 자리아타의 가르침’ 등을 주제로 연구하며 이를 교육현장에서 실현해 왔다. 스님이 말하는 ‘깨달음의 교육’이란 자성(自性) 즉 원융한 본체자리에서 인본정진을 최고로 발휘하는 교육이었다.

“‘깨달음의 교육’이란 인생의 의미를 깨닫도록 계발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자비심을 갖게 하고 사람과 만물이 상생(相生)하고 공존함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교육, 심리교육, 자아교육, 사람 살리는 교육을 통해 타인의 입장에까지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화범문교기념회 창립이념 중)

사람들은 수목과 꽃, 풀들이 땅 위에서 함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상생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우리들 역시 지구라는 대지 위에서 공존하고 있다. 그



◇효운 스님.

원 화범대학은 세계 여성 불자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약간의 몸이지만 씩씩한 정진으로 자신의 수행, 교육, 사회봉사를 쉬지 않고 발휘하는 그의 모습은 세계 비구니들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찬사를 얻기에 충분하다.

화범대학 황우제 교수는 효운 스님을 이렇게 평한다. “스님은 송고한 예술적 조예와 위대한 지혜를 갖춘 분이 다. 사람을 멀리한 채 신행에 온통 몰두할 수 행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저자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큰 은둔’을 펼쳤다.

이는 큰 지혜와 자비를 실천한 보살의 길을 보여준 것으로 길이 찬탄받을 만한 일이다.”

김재경 기자

세계 최초 불교와 현대 기술교육 융합 시도

‘불학·예술 통한 정토구현’은 대학설립 이념



자비실천 합창단 한 대각행 단장 찬불가는 신심·행 하도록 하는 힘

“찬불가는 기복불교를 벗어나 바른 신심과 행을 하도록 마음을 감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필요한 곳에 달려가 노래 한 곡이라도 불러주는 행(行)을 하는 것이 진실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한 대각행(65) 단장은 이러한 신념 하나로 자비실천합창단을 10년 동안 운영해 왔다. 개원식, 영가천도 49재, 음악회, 양로원에서 하는 노래 봉사와 매년 동지마다 해운 팔죽공양을 비롯, 그 늘진 곳을 찾아 자비행을 펼치는 한 단장은 온통 봉사의 마음뿐이다.

“심부름꾼이죠. 힘든 때도 많지만, 찬불가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져 자비실

천의 행이 끊이지 않길 바랄 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부처님만 알아주면 그만이라는 한 단장의 변함없는 신심과 원력은 자비실천합창단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한 단장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이 찬불가를 배우고 함께 부르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찬불가 보급에 남은 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운 지방을 본거지로 하여 번식하는 새 중에 백설조(百舌鳥)라는 새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만 되면 나타나 때를 지어 다닌다. 이 새를 티티새라고 하는데, 이를 두고 일어났던 사건이 우화처럼 전해지고 있다.

한 농부가 자신이 숭상한 성자의 기념일에 그물로 몇 마리의 티티새를 잡아 아내에게 솥 티티새를 사냥해 왔으니 요리할 하라고 시켰다.

그러자 아내는 티티새를 보고 “당신이 잡아온 새들은 솥 티티새가 아니고 암 티티새”라고 하면서

“어떻게 입수를 구별 못하느냐”고 나무랐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놈들은 분명히 솥냄으로 당신이 비보 같아서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아내는 끝내 굽히지 않았다.

마음비추기

고, 육신각신 한 끝에 화가 난 남편은 몽둥이로 아내를 두들겨 패다. 그럼에도 아내는 끝내 굽히지를 않았다. 남편은 더 때려서라도 아내의 고집을 꺾고 싶었지만 큰일을 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일단락

을 맺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성자의 기념일이 다시 돌아왔을 때였다. 아내는 1년전의 일을 떠올려 남편에게 작년 일을 이야기 하면서 그 티티새들은 암놈이었다고 말했다.

자신과 남을 해치는 논쟁

남편은 남편대로 지금 생각해도 그 티티새는 솥 티티새라고 말했고, 싸움은 또다시 시작되어 아내는 심한 몽둥이 찜질을 당해야 했다. 웃지 못할 일은 이와 같이 솥 티

티새나, 암 티티새나 하는 싸움은 1년마다 되풀이 되어 아내가 죽을 때 까지 무려 17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명분 없는 자존심싸움의 어려서움을 질책하는 이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한번쯤 되새겨볼만한 고사이다.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항상 다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만나게 된다. 적연(유마선원장)

『국내 파동명상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현 삼경그룹 고문
- (주)허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소프트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 100% 활용에 도전한다. <파동명상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 ※ 파동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 전생퇴행 파동명상-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 원격제령 파동명상-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파동명상 지도사 전생연구학회에서 파동명상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일주일 과정 (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전문반 과정을 마친 후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음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일반적인 파동명상 수업외 (태아령, 조산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5월 3째주, 5째주

수업에 참가하신 많은 스님들이 영가천도 및 제령부분에서 영가 또는 빙의령과 직접 대화가 이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이 코너는 저희 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스님·법사님들의 놀라운 경험담을 듣고 있습니다.

동방파동 명상학회 대구광역시 지회장인 성호스님.

동방파동 명상학회 대구광역시 지회장인 성호 스님(☎011-9793-6420)은 지난 여름 어느 날 (2002. 8월) 어느 중가 집 종손에게 시집가서 결혼 5년이 지나도록 임신을 하지 못하여 애매우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신도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평소 그 부부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었고 병원에서 의학적 소견으로도 임신은 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님은 파동명상요법으로 왜 그 여성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지 그 문제의 근원에 접근해보았는데 그 결과 그 여성의 자궁 속에는 놀랍게도 그녀의 죽은 친정어머니의 영혼이 들

어 앉아있었고 그 여성이 임신이 잘되지 않은 이유가 그 어머니 영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스님이 파동명상요법으로 그 영혼을 불러내어 왜 그곳에 있느냐고 물어보니 자신은 한평생을 너무나 가난하고 한 달에 살았는데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풍요롭고 좋아서 딸의 몸을 빌려 다시 이 세상에 빨리 나오고 싶어 딸의 자궁 속에 숨어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스님은 그 영가를 잘 타일러 천도를 해주었는데 그 후, 그 여성은 그렇게 소원하던 임신을 하게되어 지금은 산달이 가까워져오고 있다고 한다.

동방명상전생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